

와인시장 바닥은 어디... 화이트 와인만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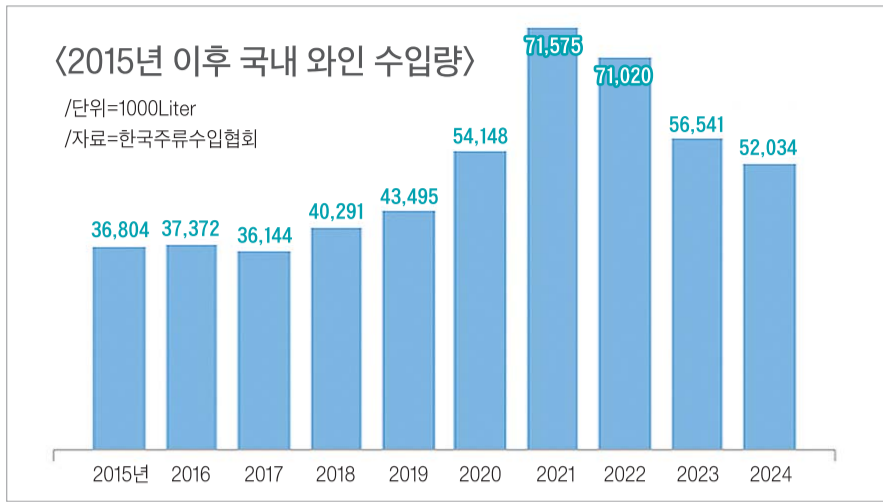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024년 수입주류 통계

와인업계에 곡소리가 난다지만 작년에도 잘 팔린 와인이 있다. 화이트 와인이 늘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뉴질랜드 와인이었다. 유럽이나 미국, 칠레 와인에 비해 기존 수입 물량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증가율 77%(물량 기준)는 분명 눈여겨 볼만한 수치다. 호주 와인을 이미 앞질렀고, 금액 기준으로는 스페인 와인보다도 많이 팔렸다.

다만 와인 시장 전체로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실 와인 뿐만 아니라 주류업계가 다같이 울상이다. 하이볼을 등에 업고 살아나던 위스키의 인기는 시들해졌고, 수입



맥주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모양새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4년 와인 수입 규모는 4억6208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7% 감소하면서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수입된 와인은 5203만 리터로 물량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8% 줄었다.

와인시장은 팬데믹으로 열풍이 불었던 2021~2022년을 정점으로 엔데믹과

함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7%, 69.6%로 급증했지만 2022년 3.8%로 주춤하더니 2023년 -12.9%, 2024년 -8.7%로 감소세가 굳어졌다. 물량 기준으로는 이미 202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 주종을 불문하고 수입 주류 대부분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23년 수입량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위스키는 작년 2744만 리터로 전년 대비 10.3% 줄었다. 상반기 반짝 유행하던 데킬라도 연간으로 보면 물량이 4.5% 감소했고, 수입 주류 가운데서는 사계 정도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종을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업장 쪽에서 타격이 워낙 컸다”며 “일부 소비가 된다고 해도 가정용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팔리는 정도며, 2030 젊은 층에서 데킬라가 인기를 끌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작다”고 설명했다.

와인 수입이 줄었기는 한데 와인이나 국가별로 보면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레드 와인은 수입규모 기준으로 13.3% 감소한 반면 화이트 와인은 8.4%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생산지 가운데 유일하게 뉴질랜드 와인의 수입이 늘었다. 수입 금액으로 보면 전년 대비

55%나 늘어 스페인과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됐다.

종합해보면 뉴질랜드 화이트 와인의 선전이 전체 와인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아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젊은 층, 그리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레드 와인 대비 상대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낮고 산뜻하게 즐길 수 있는 화이트 와인을 선호했고, 소비봉 블랑이라는 대표 품종으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와인 시장의 전망도 밝지 않다.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예상 범위보다 벗어날 정도로 급등하면서 애써 수입역직 손해를 봤다는 수입사들도 나오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새로운 제품군을 선보이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보수적으로 경영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생활의 매 순간, 여행자의 태도로

직장인들은 대개 여행을 지긋지긋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여긴다. 여름휴가를 떠날 때 기를 쓰고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일상의 상흔이 질게 남은 ‘한국이 싫어서’일수도.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저자 정혜윤은 여행을 일상의 탈출로 보는 의견에 반대한다. 그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의 매 순간을, 여행지에 온 여행자의 태도로 살 것을 권한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목표 따윈 생각 않고 더 알고 더 느끼는 데서 단순한 기쁨을 느낀다. 반면 삶 속에선 수많은 것들을 오로지 수단으로 삼는다. 여행지에서 우린 낯선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는다. 허나 삶 속에선 친절함을 기대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타인과 소망을 나누지 않는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확실한 길만 찾아가지 않는다. 이와 달리 삶 속에선 확실한 것만 찾는다.

정혜윤은 세상천지 어디를 가더라도 결국은 장소가 아닌 자신이 세상에 유일한 여행자인 순간이 있다고 말한다. 그가 여행을 주제로 쓴 인터뷰집 ‘여행, 혹은 여행처럼’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향 땅 밖을 벗어나 보지 못한, 그러나 밤마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혼자 읽기 아까워 소개한다.

사연의 주인공은 충청북도 음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시문학 동아리 회원들이다. 시 창작 교실 맨 앞자리에 앉은 한중자 할머니는 일흔두 살까지 문맹이었다. 딸이라 하면 그저 집에서 귀여워하면 되는 줄로 알았던 부모는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25살이 되던 해 그녀는 먼 친척의 중매로 옆 동네로 이사 갔다. 시집은 가난했고, 식구가



여행, 혹은 여행처럼 정혜윤 지음/난다

많았다. 딸이 굶어 죽을까봐 출가시킨 후 하루도 편히 자지 못했던 친정 엄마는 딱 한 번 딸네 집에 찾아왔다. 그저 손자만 안고 들여다보고 있다가 얻어다 준 국수 한 그릇을 서서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곤 며칠 뒤 돌아갔다. 이 일은 평생의 슬픔이 됐다.

“이대로 늙을 순 없다!”라는 구호를 노트북 앞에 붙여 놓은 정반헌 할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살면서 시 비슷한 것을 써본 적은 없지만, 다른 걸 끼적여 본 기억은 있다. 쇠죽을 끓이다가 막대기로 쇠죽에다가, 밥을 짓다가 부지깽이로 흠바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도 교복 입고 학교에 가고 싶다” 부모에게 털어놓으면 속상해할 말, 친구에게 고백하면 미쳤다는 소릴 들을 이야기가 쇠죽의 뽀글거리는 거품 위에, 부엌의 흠바닥 위에 쓰였다가 사라졌다.

정혜윤은 “그녀들이 시를 심는 땅의 이름은 삶이었다. 동시에 그녀들이 뿌리는 씨앗도, 쓰는 시도 삶이었다”고 말한다.

284쪽. 1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지금 당장, 정의 실현

식물학자 아서 겔스틴은 1943년 ‘2,3,5-트리오도벤조산’이라는 화합물을 흡수한 식물은 성장이 빨라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모든 잎을 떨어뜨리며 말라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뜻하지 않게 그의 연구 결과는 인간을 대량 학살하는 무기 개발에 활용됐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당시 대량의 ‘고엽제’를 살포했다. 베트남의 마을 2만여곳에서 약 400만

명이 고엽제에 노출돼 40만명이 숨졌다. 자신의 연구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데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겔스틴은 고엽제 무기와 반대 운동의 선봉에 섰다. 범죄를 저지른 권력은 미꾸라지처럼 범망을 빠져나갔다. 책은 에코 사이드를 처벌할 근거를 ‘지금 당장’ 마련하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300쪽. 1만8000원.



황준서 지음/오월의봄

당신은 세계 그 질문을 한 2만 번째 사람입니다

“제가 여성혐오자라고요? 저 여자 엄청 좋아하는데”, “왜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해자로 뭉니까?”, “미투 때문에 나도 ‘무고’의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페미니스트라면 지긋지긋하게 들었을 질문들이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페미니즘 백래시가 심한 나라다. 자신의 정체성을 페미니스트로 규정하면 삶의 난도가 높아진다. 이유도 모른 채 공격당하기 일쑤고, 질

리독록 같은 질문에 시달린다. 질문자들은 정말 궁금해 묻는 걸까. 책은 페미 교수와 반페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마주한 질답들로 구성된 페미니즘 입문서다. “페미니즘이 남자들을 죽이려 든다”는 해괴한 유언비어를 믿는 이들, 온라인상에 떠도는 실제 없는 ‘상상 페미’가 남성을 괴롭힌다는 헛된 망상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176쪽. 1만6800원.



오혜민 지음/날

가족신분사회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장에게 가족 내 친권과 재산권 등을 독점케 하고 그것을 남성 직계 비속에게 우선 세습하는 호주제 폐지로 우리는 조금이나마 평등한 세상을 살게 됐을까. 한국사회 성차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호주제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유산은 수많은 법제도에 남아 변함없이 강력한 영향

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성애자로 이뤄진 ‘정상 가족’을 구성해 사회적 ‘신분’을 획득할 것을 개인에게 요구한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엮인’ 관계만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은 범망의 보호 밖에서 불평등과 차별, 낙인을 경험한다. 책은 호주제 폐지 이후 20년간의 한국가족정치사를 파헤친다. 312쪽. 1만8000원.



가족구성권연구소 지음/와온



▲美 시애틀 공항서 여객기 2대 충돌 ‘날개가 꼬리 관통’
▲트럼프, 이민자 추방 ‘타이틀42’ 재가동 검토... ‘홍역·결핵 발미’ /사진 뉴시스

▲美 국무장관 “G20 회의 안가...남아공 토지정책 등 문제”
▲“파나마, 美정부 소유 선박에 파나마운하 통행료 면제”

▲트럼프 가자 구상에 우려 지속...“영원한 전쟁 레시피”
▲美 전 여성 수영선수 3명, ‘트랜스젠더’ 출전 허용한 하버드대 소송